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확증편향’(確認偏向)이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으로 ‘잘못된 확신’이다. 크게 ‘통계학적 확증편향’과 ‘심리학적 확증편향’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확증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인지적 편향이다. 가령,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재인 케어 등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생산·투자 부진, 지역일 몰락, 고용 참사, 소득 양극화 등의 부작용이 여러 통계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확증편향’에서 벗어나라

그런데 정부는 경제 정책 실패를 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유리한 통계 결과만을 선별해 홍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민간 소비 증가율(2.8%)이 경제 성장률(2.7%)을 웃돌았다”면서 “소비 심리가 하락했으나 실제로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4%로, 약 52%를 민간 소비가 주도했다”는 통계까지 인용했다. 민간 소비가 괄목할 성장을 거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때문이므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민간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정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 소득 중에서 의료 보험료나 대출 이자 등과 같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빼고 남은 돈이 소비가 가능한 ‘가처분 소득’이다. 현 정부에서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가처분 소득은 줄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못사는 사람들(소득1,2분위)의 가처분소득은 더욱 빠르게 줄어가고 있고, 반대로 잘사는 사람들(소득4,5분위)은 더 빨리 늘어난다는 점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자라는 것인데 정반대로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생 경제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아마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평화가 경제’라는 심리적 확증편향이 강하게 작동된 건 아닌가 싶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남북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처럼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더구나 평화가 경제가 되려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현 경제 상황은 너무나 절박하다. 경제의 두 축인 생산과 투자가 모두 침체하고 있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추세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평화가 경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당장 성과 없는 경제 정책의 수정 보완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여하튼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에 빠지면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또한 온갖 갈등과 논쟁과 불통을 불러올 뿐이다. 닉커슨(Nickerson) 미국 터프츠 대학 교수는 “확증편향은 상당히 강력하고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편향이 개인과 집단 또는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는 온갖 마찰과 논쟁과 오해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단언컨대 현 정부가 확증편향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보의 미래는 없다. 경제가 무너지면 민심이 급격하게 이반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아무리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진보 정부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 앞엔 장사가 없다. 이 대목에서 “진보의 미래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갑니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깊이 와닿는다.

종교칼럼

망월동 영령들이 보내온 편지



장헌권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너무나 억울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들은 계엄군들이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을 진압봉으로 구타하고 연행하는 것을 보았지요. 만류하던 우리들까지도 폭행을 했지요. 영문도 모른 채 두들겨 맞고 총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치다가 맞은 승결이지요.

바로 망월동에 있는 우리 마음 그대로이지요.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쥐어짜던 노레인가. 여기에 누워 있는 가련 여학생들까지 총칼로 쏘고 찢었던 무지비한 학살자들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그러진 모습들,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요. 우리는 역사의 거름이 되어 망월동에 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를 지켜보고 있지요. 39년 전 시간은 정지되어 있지요. 우리들의 한과 절규는 피맺힌 통곡의 세월이지요. 봉오리가 피기도 전에 으깨진 모진 시간들이지요. 그동안 잠을 만큼 잠다가 더 이상 잠을 수 없어 망월동 무덤 안에서 말라버린 뼈들이 이렇게 웅크린 채 편지를 써 보냅니다.

전두환 신군부들이 자행한 것을 삼척 동자도 알고 있지요. 최근 전두환의 파렴치한 것을 보면서 치가 떨립니다. 하 늘나라에 있는 조비오 신부를 또 죽이는 일을 하고도 법의 심판을 두려워 치매가 있다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힐 뿐입니다.

특히 이번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말했지요.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중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들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단들 사이에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아반적인 망동을 두고 봐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의로운 광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 망언을 가벼이 남긴다면 공당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물론 왜곡과 폄하를 일삼는 지만원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요. 촛불 혁명으로 조금이나마 억울함이 해소될까 했는데 갈수록 탄산이네요.

헤마다 오월이면 손에 손을 잡고 80년 5·18을 잊지 말자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건만 왜곡과 고통의 세월은 여전하기만 하네요. 더 이상 침묵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덤 앞에 앉드린 죄 없는 어머니들, 40년 가까이 아직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응어리 풀릴 그날이 언제일까 되뇌이며 손잡아 기다리는 그토록 아원 밤들, 맺힌 한 그 매듭 언제 누가 풀어 줄까 했지만 오월만 되면 정치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떠들다가 돌아옵니다. 가랑근 긴 자들은 진즉 한자리씩 차지했구요.

기고

대학 혁신으로 가는 초심



김수관
조선대 대외협력처장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개인의 삶이나 조직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명과 비전, 그리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이다. 대학의 생존 역시 기본 방향과 추진 계획을 정리한 큰 그림을 공유하면서 장단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즉 속도보다 방향이 문제이다. 조선대학교는 한국 최초의 민립(民立) 대학이다. 전국 7만 2000명의 설립 동지 회원들의 헌신적 모금으로 1946년 9월 개교한 조선대학교는 광주와 전라남도의 모든 시민이 주인이다. 2018년 교육부 대학역량평가 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초래된 위기는 모든 구성원에게 비상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조선대가 이번 기회를 전회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의 주인공 학생

이 행복할 때 모두가 만족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여 뼈를 깎는 혁신과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했고 또한 변하고 있다. 대학이 보다 강한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매우 절실한 시기이다. 우선 학생 인구 감소와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 건전성 악화, 글로벌 경쟁 심화, 기업을 정신 및 창의성·공감 능력을 가진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 등과 같은 고등 교육의 외부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만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사즉생(死即生) 각오로 지옥문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 환경을 이겨내지 않으면 급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내부적으로는 총장 지도력 상실과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위기감, 세대교체에 따른 리더십 공백, 새로운 리더십에 요구되는 세대 간 소통과 조화 협력 등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혜와 역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생을 대학 혁신과 대학 문화의 주체로, 중장기적 인간력을 가지고 교직원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교육 과정과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갈등 조정이 중요하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유기체 조직을 이루어 목표와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공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순한 결속보다는 더 질적으로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조직이 필요한 시기이다. 대학 혁신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룬 교수들을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특성화와 슬림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시간 강사 유지, 혁신위원회와 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실행력 있는 혁신안 마련, 구성원들의 고통 분담 의지, 적극적 홍보로 공감대 확산 등도 필요할 것이다.

학생, 교수, 교직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다. 대학 학과에 따라 조직의 운명이 달려있기도 하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은 없다.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 소수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버리고 공동체의 성공을 우선해야 한

다. 공동체는 상호 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이 핵심이다.

이칭득심(以誠得心),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이다. 경청은 귀로만 하지 않는다. 눈으로 하고, 입으로 하고, 손으로도 하는 것이다. 경청과 공감은 성공하는 리더의 필수 조건이다. 진정한 소통은 경청 공감을 통한 의견 반영이다. 더불어 성공의 경험과 성공 DNA를 지닌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헌신과 희생을 더하면 구성원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 여기에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follower)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돕는다면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바꾸는 역전이 발생할 것이다.

73년 동안 지역민의 사랑과 지원으로 성장한 조선대학교는 호남 인재 배출의 중심이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대학이다.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조선대학교가 학생 중심의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7만 2000명의 설립 동지회원들의 뜻을 이어 받아 호남 지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익형 사립대 또는 민립대라는 시범적 대학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社說

한국당 ‘5·18 망언 징계’ 꿈수 아니고 똥가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만원으로 하여금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망언을 하도록 해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이라 불리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중 1명만 징계하고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당규를 내세워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에 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연한 반응이지만 정치권과 5월 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 사회단체는 꼬리 자르기를 위한 꿈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지금 국민이 자유한국당에 묻든 것은 정체성인데 당헌·당규를 내세워 5·18 훼손을 묵인하는 꿈수를 부렸

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는 한발 나아가 차체에 한국당 해체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버르고 있다. “한국당의 5·18망언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반복되는 프레임 전략”이라며 “광주학살 부정방지법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징계를 보면 한국당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뉘튼게 징계에 나선 데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러 윤리위를 늦게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들린다.

망언 3인방에 대한 제명이 이뤄지려면 한국당이 의원 총회를 열어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국당은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제대로 인식, 윤리위의 꿈수 징계를 반성하고 당장 의원 총회에서 망언 3인방에 대한 제명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백운광장 교통대란 막을 사전 대책 절실하다

광주 백운광장 일대에 올 상반기 중 하수관거 설치,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이 집중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최대 4년이 걸리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으로 장기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 불편은 물론 상가 등의 생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의 백운광장-웨슬레신협 구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7월부터 광주시 도로과의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 사업,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 연장 17.06km) 사업이 각각 시작된다. 이들 사업으로 인해 대남로 8차선 가운데 3차선 이상이 공사 현장으로 탐바꿈하면서 운전자는 물론 인근 주민 등의 장기간 불편이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대규모 사업 이외

에도 민간 아파트단지 조성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한 백운광장 교통대란을 줄일 사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 대형 공사가 진행될 경우 시공사를 선정해 교통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아직 백운광장 일대 공사의 시공사는 대부분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백운광장은 농성광장도 빠지는 대남대로와 광주대·나주 방면의 서문대로가 교차하는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다. 특히 이곳은 고등학교들이 밀집돼 있어 무더기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에도 불편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는 이들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 전반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직접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공사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 및 승용차 2부제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인간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시기에도 혈액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인간의 피와 동물 피의 차이, 같은 인간일지라도 혈액형이 다르다는 점을 몰랐을 뿐이다. 당연히 수혈의 부작용은 생각지도 못했을 터.

옛 설화 가운데에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부모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한 뒤 그 피를 마시게 해 부모를 살린 효자 얘기가 많다. 이른바 단지수혈(斷指輸血)이다. 실제로도 그

지식 없이 동물과 동물 간은 물론 동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혈이 근 100년 전까지 진행돼 왔다.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행위를 헌혈이라 하고, 헌혈 받은 혈액을 환자에 주는 의료 행위를 수혈이라 한다. 헌혈·수혈이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이뤄진 것은 1901년 오스트리아의 칼 란트슈타이너가 ABO 혈액형을 발견하면서부터이다. 이 공로로 1930년 란트슈타이너는 노벨상을 받았다. 견제차는 있지만

헌혈

혈액형의 발견은 인류의 업적 중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발견으로

평가된다. 매년 겨울철이면 ‘헌혈의 집’에서는 부족한 혈액 때문에 헌혈 캠페인을 벌인다. 1~2월은 방학 기간인 데다 해외여행이나 연수가 많아 헌혈이 급감하며 전체 헌혈자 중 10대와 20대의 비율이 70%를 차지하는 특성 탓이다. 헌혈은 10여분의 짧은 시간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봉사 활동이다. 감기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번 겨울에 헌혈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최희중 사회부장 cha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FAX 222-0195)	220-0551
220-0663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4	220-0693	업무국	220-0551
220-0642	220-0697	지자체협력팀	02-773-9331
		서울지사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